

전북도청사 “포천석 대신 황등석 쓰자”

도내산 석재 사용 의무화로 내고장살리기 눈길

전북도에서 도청사 신축에 쓰이는 석재를 도내산으로 하자는 여론이 일면서 국내 석재산업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1월 22일 “도가 신설 중인 도청사 외장재로 경기도 포천석(판석)을 100% 사용하도록 설계했다”며 “품질 좋은 황등석으로 청사 외벽을 장식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붕괴 위기에 직면한 황등석재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회생방안을 촉구했다.

신축중인 전북도 및 의회청사 공사에 필요한 대리석 판석은 모두 9만㎡, 외벽면적 71% (6만5천㎡), 바닥 및 내장용이 27% (2만4천㎡)로 각각 35억원과 14억원대 규모다. 도는 청사 설계 과정에서 비교적 색깔이 밝은 포천석을 외장재로 선택한 반면 황등석은 비중이 적은 바닥 및 내장재로 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질책을 마친 도내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에

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신축중인 도청사 건물 외벽에 쓰일 석재도 도내에서 생산된 돌을 사용하자는 것.

도내산 석재 외면은 전 도지사 시절부터 제기된 문제. ‘소리의 전당’ 시공시 돌 문합과 색깔을 돌이 문합성을 사용했으며 최근 완공한 정읍시 ‘동학혁명기념관’에서도 포천석을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외지산 석재를 사용해왔다.

이는 신축 건물 설계를 대부분 서을 등 외지업체가 맡는데 원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내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문합만을 고려해 외장재를 선택한다는 것. 또 외지 석재산업자들이 서울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는 반면 황등석은 ‘품질이 저조하고 생산량이 적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도 안고 있다. 결국 황등석은 기본 설계과정에서부터 거론되지 못하는 실정.

그러나 품질에서는 황등석이 오

히려 뛰어나다. 전주시 청사를 비롯한 전국 유명 건물에서 외장재로 사용했으며 국보인 익산비옥사지 석탑도 황등석으로 만들어져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

“배재 무왕 때 익산비옥사지석탑의 재료로 사용되어 1천4백여년이 지난 현재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외외사당의 석재도 황등석입니다. 도의 상징인 도청사에도 황등석을 사용해 전북의 자긍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지요.”

박의원은 “도가 설계 주주회사 황등석 사용을 의무화하면 당연히 황등석을 기준으로 문합과 색깔을 결정하게 된다”며 “건물외벽 석재 사용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철사의 한 관계자는 “청사 설계 과정에서 황등석 사용 문제가 거론됐으나 건물 외관을 고려해 포천석으로 결정된



전북도의 도내산 석재 사용이 면밀히 검토해 황등석 사용 비율을 적어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돌의 고장’ 익산 부활하나

익산시 황등면 일대는 한 때 석가공 공장이 즐비한 ‘돌의 고장’이었다. 국내 석재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익산석재단지에는 2백여개가 넘는 석재업체가 공존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절반 가량의 업체가 도산, 경기회복에 따라 영업

석가공 공장 2백여개...국내석재산업 중심지

익산 황등석, 품질에서 포천석, 문천석 능가

을 속개하고 있으나 과거 명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쇠락한 상태. 그러나 ‘황등석의 품질만 좋은 어느 지역 석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박용근 의원은 말한다. 그는 지난 1월 22일 한국건설표준연구원측에 포천석과 익산 황등석의 비교 분석을 의뢰, 황등석이 흡수율과 오염도, 압축 강도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504), 문천석(1,558)보다 높았다. 특히 포천석의 경우 침투 입자가 통치는 현상으로 녹물이 발생, 건물 미관이 훼손될 수 있지만 황등석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없었다. 이렇듯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전북도가 황등석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익산이 다시 ‘돌의 고장’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석재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민족의 성지 맞나’

비새며 부식 균열...보수비 조달 어려워 방치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도 비가 샌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의 독립기념관이 건물 곳곳에 부식과 균열이 발생하고 주요 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 안전과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적이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주 건물인 겨래의 집 철골구조물은 도장이 벗겨져 부식이 심하고 지붕처마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파손된 지붕으로 빗물이 스며 내리면서 실

내 마감재와 배관시설까지 부식되고 있다. 전시관은 지붕 이용세의 품을 타고 빗물이 흘러 보관 사료와 전시물의 파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통일염원의 탐과 추모의 자리도 화장석 틈새 이용세가 파손됐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백화현상이 발생해 관람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고정식 폐쇄회로(CC)TV 시스템과 도난방지기는 내구연한을 7년이나 지나 감시범위가 좁고 오·작동이 잦아 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 개관 이후 5차례나 발생한 사료의 도난과 분실사고가 방범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노후화를 막기 위한 보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보수비가 많아 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1987년 개관한 독립기념관은 120만평의 부지에 겨래의 집을 비롯해 전시관과 원형극장, 겨래의 탐, 중앙식당 등 50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화장실 건축비가 평당 900만원이라...”

김해수로왕릉 화장실 개축에 총 1억6천여만원 공사비

한 왕릉공원 내의 화장실을 전통식으로 건축한 비용이 평당 9백만원에 이르러 빈축을 사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김해수로왕릉 내 화장실은 지난해 7월 개축하는 과정에서 평당 9백여만원대의 높은 건축비로 공사를 시행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월 10일 김해시의회 문화재특별위원회 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졌다.

김해시의회 인용택(4·추진면) 의원은 18평의 화장실을 건축하는데 평당 915만원씩 총 1억6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 까닭에 대해 집행부의 상세한 답변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는 “1.7미터에 달하는 지반 및 처마공사의 추가, 경사 슬라브 상의 시공한 토기, 문화재 시설 공사에 따른 노후비 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릉 내 화장실은 지난해 3월 관광개발 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준공한 김해공설운동장 입

구 화장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김해공설운동장 화장실의 경우 평당 340여만원의 사업비로 38평의 화장실을 개축(총공사비 1억3천만원), 한국관광공사와 2002년 문화시민 중앙협의회로부터 전국 최우수 공중화장실로도 선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문화재 공사는 실계를 비롯한 시공자, 인부 등 모두가 문화재관리청의 지침에 의해 공사를 해야 한다. 전통한식 시공에 의한 노후비 등도 일반건축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공사비 상승 원인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화장실 공사비에 평당 900만원을 쏟아붓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건축전문가들도 “화장실은 일반 건축보다 평당 2배 정도의 건축비가 증액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재 시설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900만원대로 계산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래원 엉덩이는 무쇠엉덩이~”

촬영 중 호텔 대리석 테이블 파손

“미남 탤런트 김래원의 엉덩이는 무쇠엉덩이?” 탤런트 김래원이 드라마 촬영 중 대리석 테이블을 파손해 주변의 놀라움을 샀다.

대리석 테이블 사건은 지난 2월 경주의 한 특급호텔에서 MBC 수목드라마 《논스톱》 촬영 도중 발생한 연기가 아닌 실재상황. 그날 김래원은 극중 호텔회장인 아버지 차희장(한인수)의 방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들어가 “장사나 해보려고요”라고 말하는 장면의 (2월 15일 방송) 촬영 때문에 2시간 이상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었다.

자연 다리가 파손됐다고 잠시 촬영이 중단된 틈을 타 그는 방 한쪽에 있던 대리석 테이블에 걸터앉았다. 그 순간 테이블은 한쪽으로 기울며 파손됐다. 문제의 대리석 테이블은 국내 굴지의 그룹 회장이 주로 쓰던 VIP용 스위트룸에 있던 것. 5백만원대의 최고급 수입품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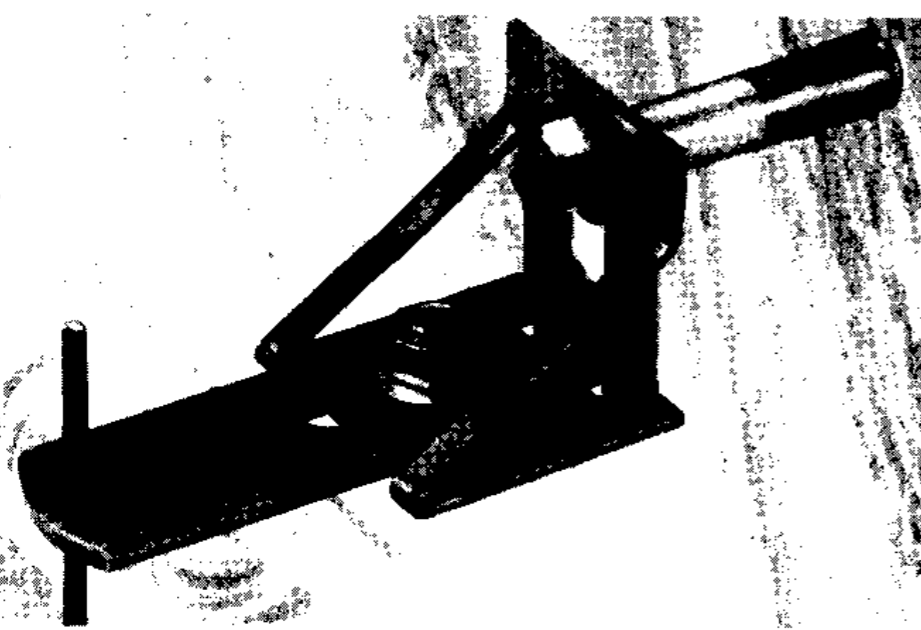
호텔측은 단단한 대리석 테이블이 깨져버린 사실에 놀라며 당황했고, 촬영장에 있던 제작진들은 “엉덩이가 무쇠 엉덩이냐”며 김래원에게 위로인치 농담인지 모를 말을 건넸다.

김래원은 “촬영 당일에는 그렇게 비싼 것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듣고 아꼈다. 더 멋진 연기로 빛을 보겠다”며 이날의 해프닝에 머리를 굴렸다.

파손된 테이블에 대해서는 방송사측이 금액을 변상했으며 호텔측도 촬영 중 생긴 일임을 고려해 최소한의 금액만 받았다고 한다.

삼각앵글 (ANGLE-TRI.)

◎ 과학적으로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개발품 ◎
유럽식 설계 건축시공용 앵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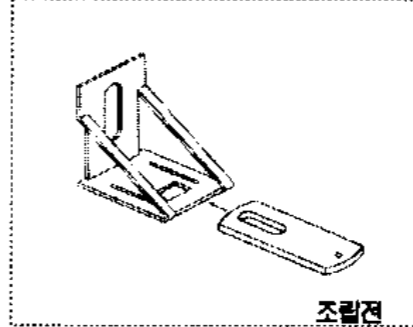
▲ 삼각앵글(ANGLE-TRI.)이란?

삼각앵글은 건축물의 마감공사를 석재로 시공할 때 사용하는 앵글(대리석부착용 브라켓)로 지금까지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L형앵글을 사용해왔습니다. L형 앵글은 대리석의 무게 및 마감거리에 따라 여러종류의 앵글을 규격별로 다양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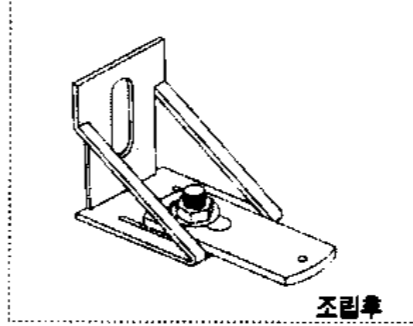
그러나 저희 부성엔지니어링은 대리석의 무게, 마감 거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성능을 개선시킨 삼각앵글을 개발했습니다.

삼각앵글을 사용할 경우 설치가 간편하며 빠르고 견고합니다. 또한 시공시 인건비도 대폭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하중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석재의 무게에 의해 아래로 처지지 않는 앵글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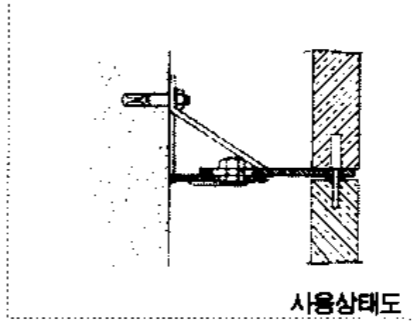
삼각앵글을 사용해보시면 여러분은 매우 만족하실 겁니다.



조립전



조립후



사용상태도



스튜디오 웨지 앵커볼트 STUD (WEDGE) ANCHOR BOLTS

본 제품은 각종 철 구조물에 안전도와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구조물 또는 중량물을 고정시키기나 부착하는 건설공사작업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 모체에 목재집 권통부착, 천장의 구조물 부착, 브리켓 부착, 각종 레 설계에 없어서 안 될 제품입니다. 스튜디오 웨지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석재마감공사를 하던 요구하는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이 가능하며 설치가 매우 간단합니다.

부성엔지니어링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건축시공용 삼각앵글.



부성Eng.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중앙유통상가)
T. (02)2685-6102/3 F. (02)6736-6104
E-mail: safeor@hanmail.net